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퀀틴전시 플랜] 미국발 R(침체)의 공포, KOSPI 낙폭 축소된 이유

-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변동성 확대되며 투매 출회
- KOSPI, 초반 하락폭 축소하며 미국 대비 건조한 모습
- 하락업종: 조선, 방산 등 최근 강세 업종의 차익실현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Commodity

### 시나브로 시작될 원자재의 환절기

- 다시 커진 불확실성, 그러나 수요 파괴 척도인 구리-알루미늄 갭은 여전히 낮은 수준. 선행 지표는 2/4~3/4분기 상승 방향 제시
- 미국의 수요가 주춤한 사이, 중국과 독일은 부양. 비미국이 강해지는 구간에서 달러화는 진정, 원자재 가격 디스카운트 요인 진정 가능
- 위협적인 트럼프발 공급. 다만, 정무적 판단 시 올해보다 중간선거 있는 내년 안정 주력, 투자-공급 시차 감안 내년 공급 증가 예상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Global REITs

### [US REITs] 4Q24 REITs Inside - AI 트렌드에 따른 데이터센터 리츠 투자전략

- AI Capex 투자방향 (학습→추론)과 임차인 확대(CSP→일반기업)에 따라 리츠별 수혜시기 상이
- 초기(디지털리얼티), 중기(이퀴닉스, 아이언마운틴), 후기(이퀴닉스, 아메리칸타워) 수혜전망
- 미국리츠 66% FFO 가이던스 상회, 27% 배당인상으로 건조한 실적기록 → 데이터센터, 시니어하우징 관심 지속 필요

김다은. daeun.kim@daishin.com

## 산업 및 종목 분석

### [대신증권 양지환] [Issue&News] 항공운송업: 견고한 여객, 주춤한 화물

- 2025년 2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2월 기준 개항 이래 최대 수송 기록
- 제주항공 사고 영향으로 1월에 이어 2월에도 수송객 크게 감소
- 지역별로 미주, 일본, 중국 노선 양호하나 유럽은 노선 조정 영향으로 부진

양지환. jiwahn.yang@daishin.com

### [1Q25 Preview] LG 전자: 1Q 깜작실적, 다시 보자!

- 1Q25 영업이익(1.41조원 5.3% yoy)은 컨센서스 상회, 깜작실적 예상
- 가전의 프리미엄 매출 확대, 구동가전/HVAC 성과는 수익성 개선
- 2025년 밸류에이션 저점, 실적 상향으로 저평가 심화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스케일업] 인핸스: 커머스계의 팔란티어

---

- 이커머스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 AI 에이전트 솔루션은 기존의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
- 올해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으며, AI 에이전트 솔루션인 CommerceOS의 성장 기대

박세라, sera.park@daishin.com

---

## 미국발 R(침체)의 공포, KOSPI 낙폭 축소된 이유

-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변동성 확대되며 투매 출회
- KOSPI, 초반 하락폭 축소하며 미국 대비 견조한 모습
- 하락업종: 조선, 방산 등 최근 강세 업종의 차익실현

### 미국 경기침체 우려, 변동성 확대되며 투매 출회

트럼프,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과도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당분간 경기둔화 가능성을 시인. 최근 고조되었던 경기침체 우려를 터뜨린 트리거로 작용. 경기둔화 우려에 채권 강세, 미국채 금리 2년물(3.87%)과 10년물(4.18%) 금리는 금요일 종가 대비 13bp가량 하락. VIX 장중 최대 29%p까지 상승, Fear&Greed Index는 24년 8월 급락 당시의 17보다도 낮은 15까지 하락. '극도의 공포' 구간, 뉴욕증시 위험자산 투매 국면에서 역발상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

### 초반 하락폭 축소된 KOSPI, 미국 대비 견조

미국 3대지수 2~4%대 하락, 반면 KOSPI 1.2%대로 장 초반 낙폭 축소. 미국은 지난해 AI모멘텀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한편, Non-US 증시는 하락장에서 비교적 견조.

최근 유럽과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 유입. 한국도 금리인하 및 재정 확대 기조. 중국과 한국의 내수경기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 정책 신뢰도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견고해진다면 상대적 강세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 미국 경기 성장 기대가 둔화된 상황에서 달러약세, 채권금리도 하락추세 뚜렷. 경기불안 완화 시 KOSPI를 비롯한 비미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가능

### 하락업종: 최근 강세 업종의 차익실현

조선, 방산 업종 상승 추세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

**조선:** HD한국조선해양(-6.9%), 한화오션(-2.3%), 삼성중공업(-2.1%) 등

**방산:** 한화시스템(-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3.4%), LIG넥스원(-2.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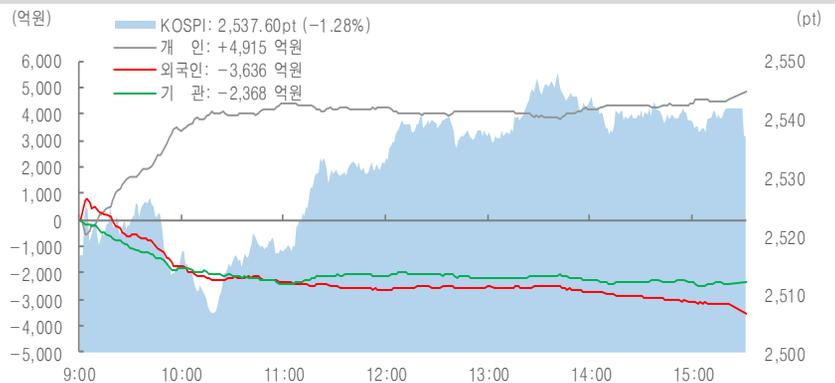
미국 기술주 하락여파, AI 데이터센터향 전력기기 & 원자력 섹터 하락

**전력망 투자:** LS ELECTRIC(-4.2%), HD현대일렉트릭(-3.5%) 등

테슬라 -15% 급락, 이차전지 섹터 투자심리 훼손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2.4%), 엘앤에프(+6.3%), 에코프로비엠(-3.3%) 등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시나브로 시작될 원자재의 환절기

- 높아진 불확실성, 그러나 수요 파괴 척도인 구리-알루미늄 갭은 낮은 수준
- 미국 주춤한 사이 Non-US는 부양 강화, 달러화발 디스카운트 진정 가능
- 위협적인 트럼프발 공급. 다만, 정무적 판단 시 올해보다 내년 가격 ↓ 예상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다시 커진 불확실성, 그러나 당장 수요 파괴는 아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비중이 30%에 근접하면서 수요 파괴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구루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도 수요 파괴의 발생 시점까지 맞추는 것은 아니다.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는 현금 비중을 늘린 지 3년 후 발생했다. 아직 위험 자산을 버릴 시점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원자재는 기존 View와 동일하게 올해 2/4~3/4분기 상승이 유효하다. 1)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순-회수는 2/4~3/4분기까지 상승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요-공급 사이클 지수 또한 상승 기세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2)잠깐일 수 있지만 Non-US 경기가 부양에 나선 구간에서 가격 디스카운트 요인인 달러화 역시 진정될 수 있다. 특히, 3)수요 파괴 척도로 활용되는 구리-알루미늄 가격 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2.5톤의 알루미늄 가격이 구리의 0.9배에 근접 시 수요 파괴가 발생하지만 지금은 0.75배에 그치고 있다. 침체 직전 강한 퍼포먼스 보이는 원자재, 그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수요 파괴를 논하기 어렵다.

## 글로벌 최대 원자재 소비국 중국, 정책 초점은 첨단기술에서 내수로

중국의 수요는 이전만 못하지만 명실상부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이다. 그렇기에 바잉 파워의 상징인 위안화를 주목해야 한다. 위안화는 달러 앞에서는 여전히 약한 모습이다. 이유는 성장률에 있다. FX는 성장률의 함수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이것이 위안화와 이를 Proxy로 삼는 원자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국은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부양에 나선다. 이구한신 보조금은 2010년에 준하는 GDP 대비 0.2%까지 확대 발표했다. 내구재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 거래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규 택지 공급까지 줄일 것이라 전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비관적이다. 다만, 단기 사이클 측면에서 추가 부양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 향후 위 정책 패키지가 본격화될 시 미분양 주택 비율(내수 경기)은 2022년 레벨로 회귀가 가능하며 이를 후행하는 위안화와 이를 Proxy 삼는 원자재는 최소 3/4분기까지 단계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 Drill Baby Drill? 올해가 아닌 내년 물가 안정이 중요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Drill Baby Drill' 슬로건을 내걸며 물가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물가를 공급을 통해 잡겠다는 발상은 위협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있어 올해는 중요하지 않다.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단임에 그칠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 패배는 곧 레임덕이다. 승리를 위해 물가와 고용 안정이 필수적인데 기저를 고려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 전략에서 그 모순을 찾을 수 있다. 'Drill Baby Drill'의 핵심은 유전/가스전 개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일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관세로 협박하며 원유 수출/LNG 인도 장기 계약을 중용 중이다. 다만, 엑스모빌 CEO의 말처럼 오늘날 투자는 내년의 공급일 뿐이다. 참모진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 물론 공식적으로 가격 상승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2018년 중간선거 앞뒀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무적으로 접근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거친 워딩보다 본심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 Global REITs

Analyst 김다운  
daeun.kim@daishin.com

## 4Q24 REITs Inside

### - AI 트렌드에 따른 데이터센터 리츠 투자전략

### - 대표종목 Top 8 실적 리뷰

- AI Capex 투자 방향(학습→추론), 임차인 확대(CSP→일반기업) 예상되며 트렌드 시기별로 초기(DLR), 중기(EQIX, IRM), 후기(EQIX, AMT) 수혜전망
- 미국리츠 66% FFO 가이던스 상회, 27% 배당인상으로 견조한 실적기록 → 데이터센터, 시니어하우징 섹터 중심의 관심 지속 필요

#### 데이터센터,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지난 3년간 데이터센터 리츠는 AI 수혜주로 분류되어 미국리츠 대비 높은 상대수익률 기록 (22년 1월 대비 미국리츠 -4.6%, 데이터센터 +11.8%). 생성형 AI 등장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은 역사적 최대 호조, 데이터센터 공급부족으로 임대시장 강세 지속 전망 1) 신규 물량 80% 이상 선임대 완료, 2) 높은 공사원가로 개발기회 제한 3) A발 수요성장 지속

#### AI 트렌드에 따른 데이터센터 리츠 투자전략

데이터 센터 시장은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비해 제한적인 공급으로 견조한 수급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데이터센터 리츠에 유효하게 작용. 다만, AI 트렌드가 바뀌면서 개별 종목들의 사업성격에 따라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는 시기가 달라 질 것으로 예상

- 1) 초기: CSP 주도하에 AI모델 경쟁 심화되고 있으므로 하이퍼스케일 중심의 투자 확장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집중된 디지털리얼티 수혜 예상
- 2) 중기: 추론형 AI가 확대되면서 일반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 중소~대기업 고객까지 다양한 고객기반의 이퀴닉스와 아이언마운틴 고성장 예상
- 3) 후기 : AI 기술 대중화로 엣지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증가 → 도심형 데이터센터와 셀타워 부지 활용이 가능한 이퀴닉스와 아메리칸 타워 집중 수혜 전망

#### 데이터센터 리츠별 투자포인트

- 이퀴닉스: ① 중소~대형 다양한 임차인 → AI 활용기업 증가 시 직접적 수혜 예상, ② 도심형 코로케이션 비중 高 → 자연성 낮아 엣지 데이터센터로 유망, ③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하며 CSP 임차인 확보에도 집중
- 디지털리얼티: ①홀세일 코로케이션 + 하이퍼스케일 DC 투자집중 → CSP선호도 高, ② CSP 중심의 하이퍼스케일 임대수요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최대수혜, ③ 학습형 AI 목적인 하이퍼스케일 대규모 신규수주 달성 → 지속 전망
- 아이언마운틴: ① AI 데이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보관 수요도 증가 전망, ② 기존 기업고객이 자연스럽게 데이터센터 수요로 흡수될 가능성 높음, ③ 보안산업 → 물리적 보관 + 클라우드 = 하이브리드 DC 수요로 연결
- 아메리칸타워: ① 2021년 Coresite 인수 통해 코로케이션 시장 진출 & 매출비중 확대, ② 여러 지역에 분산된 셀타워 포트폴리오 → 엣지DC로 활용성 高, ③ 셀타워 인프라 활용하여 엣지DC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제공 용이

#### 4Q24 대표종목 Top 8 실적리뷰

2024년 4분기 미국리츠 117개 중 66% FFO 가이던스 초과 달성, 27% 배당금 인상하며 견조한 실적기록.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리테일 섹터 견고한 성장세 지속되었으며 물류(산업), 인프라 섹터도 반등세 보이며 긍정적 흐름. 2022년 이후 미국리츠 FFO 18% 성장했으나 총수익률 S&P 500대비 71%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 높음. 펀더멘털 우수한 섹터위주 전략 유효하며 데이터센터(이퀴닉스, 디지털리얼티), 시니어하우징(웰타워) 추천

# 항공운송업

양지환 jhwanyang@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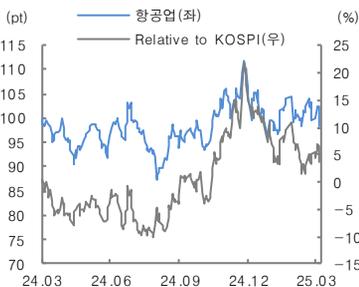
##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 Rating & Target

| 종목명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
| 대한항공 | BUY  | 33,000 |
| 제주항공 | BUY  | 13,000 |
| 진에어  | BUY  | 15,000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1.6 | -5.5 | 3.5 | -1.3 |
| 상대수익률    | -1.5 | -9.0 | 2.5 | 3.5  |



# 견고한 여객, 주춤한 화물

- 2025년 2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2월 기준 개항 이래 최대 수송 기록
- 제주항공 사고 영향으로 1월에 이어 2월에도 수송객 크게 감소
- 지역별로 미주, 일본, 중국 노선 양호하나 유럽은 노선 조정 영향으로 부진

### 2025년 2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개항 이래 2월 기준 최대 수송객 기록

2025년 2월 인천공항의 총 운항은 32,718회(+2.9% yoy), 국제선 여객 수송인원은 5,970천명(+4.7% yoy)으로 인천공항 개항 이래 2월 기준으로 최대 운항 및 수송객 기록을 경신했. 25년 1월과 2월의 총 운항은 69,591회(+5.8% yoy), 국제선 여객 수송은 12,511천명(+8.9% yoy)으로 높은 환율과 불안정한 정국 영향에도 견고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함

국제선 여객 중 직항 여객은 5,392천명(+5.5% yoy), 환승객은 577천명(-1.8% yoy)을 기록. 환승객은 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

25년 2월 항공화물은 212천톤(-0.4% yoy)을 기록하며, 1월 -1.7%(yoy)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항공화물 중 직화물은 126.6천톤(+2.8% yoy), 환적 화물은 82.6천톤(-5.2% yoy)으로 환적화물 감소가 전체 화물 감소를 이끌었음

### 제주항공 1월에 이어 2월에도 운항 및 수송객이 크게 감소

FSC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및 수송객이 크게 증가. 제주항공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전년동월대비 수송객이 15% 이상 감소

항공사별로(증감은 yoy) [대한항공] 운항 7,112회(-1.9%), 국제선 여객 1,402.8천명(+5.4%), 항공화물 91.4천톤(-7.3%), [아시아나] 운항 4,657회(+11.5%), 국제선 여객 968.6천명(+13.1%), 항공화물 44.6천톤(+9.6%)을 기록함

LCC의 경우 [제주항공] 운항 2,773회(-15.8%), 국제선 여객 449.5천명(-15.7%), [진에어] 운항 2,048회(+11.7%), 국제선 여객 428.2천명(+2.9%), [티웨이항공] 운항 1,996회(+4.4%), 국제선 여객 389.2천명(+3.5%)으로 집계

### 지역별로 일본과 중국, 미국 견조, 유럽은 대한항공 노선 조정 영향으로 부진

지역별 수송 통계를 살펴보면, 단거리인 일본과 중국의 운항 및 수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본은 엔저 영향, 중국은 비자면제 효과로 추정함

장거리 노선 중에서는 미주는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 유럽은 대한항공/티웨이항공 노선 조정 영향으로 공급 및 항공화물 수송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

지역별로는(yoy증감) [일본] 운항 7,905회(+7.9%), 여객수송 1,542.6천명(+8%), 화물 20.2천톤(+8.9%), [중국] 운항 6,562회(+4.1%), 여객수송 842.6천명(+8.5%), 화물 37.3천톤(+0.3%), [동남아] 운항 9,159회(+1%), 여객수송 1,897.8천명(+1.5%), 화물 40.9천톤(+9.7%), [미주] 운항 3,191회(+4.9%), 여객수송 470.8천명(+6.9%), 화물 46.8천톤(-4%), [유럽] 운항 1,664회(-2.6%), 여객수송 305.4천명(+1.1%), 화물 36.2천톤(-11.4%)으로 집계됨

# LG전자 (0665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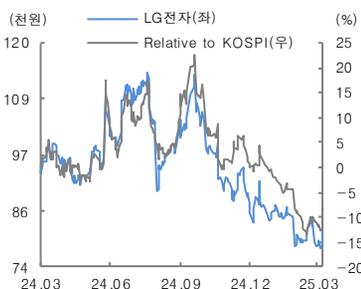
**81,800**

(25.03.11)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             |                                 |
|-------------|---------------------------------|
| KOSPI       | 2537.6                          |
| 시가총액        | 14,053십억원                       |
| 시가총액비중      | 0.66%                           |
| 자본금(보통주)    | 818십억원                          |
| 52주 최고/최저   | 113,900원 / 77,900원              |
| 120일 평균거래대금 | 446억원                           |
| 외국인지분율      | 30.86%                          |
| 주요주주        | LG 외 2 인 35.10%<br>국민연금공단 7.48%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2.6 | -4.8 | -19.9 | -14.3 |
| 상대수익률    | 2.7 | -8.3 | -20.6 | -10.2 |



## 1Q 감작실적, 다시 보자!

- 1Q25 영업이익(1.41조원 5.3% yoy)은 컨센서스 상회, 감작실적 예상
- 가전의 프리미엄 매출 확대, 구독가전/HVAC 성과는 수익성 개선
- 2025년 밸류에이션 저점, 실적 상향으로 저평가 심화

### 투자 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30,000원 상향(4%)

2025년 1Q 영업이익(연결)은 1.41조원(5.3% yoy/938% qoq)으로 종전 추정(1.14조원), 컨센서스(1.2조원)를 각각 23.7%, 17.5%씩 상회하여 감작실적을 전망. 특히 LG전자(별도)만의 영업이익은 1.27조원(9.9% yoy/흑전 qoq)으로 종전 추정(1.05조원)대비 21% 상회 추정, 2025년 주당순이익(EPS)을 18.3% 상향, 목표주가는 130,000원(2025년 목표 P/B 1.07배(실적회복기 평균))으로 4% 상향. 1Q 실적 호조 및 밸류에이션 저평가, 현 주가에서 단기적으로 비중확대 제시

2025년 1Q, 감작 실적의 배경은 프리미엄 중심의 매출 증가, 또한 신성장 측면의 경쟁력(구독가전 및 B2B(공조기 등), TV에서 웹OS 등 매출 증가) 확대가 수익성(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연결, 2025년 1Q 영업이익 추정이 컨센서스를 상회(추정)한 배경으로 분석. 2025년 연간 매출(92.3조원)과 영업이익(4.06조원)은 각각 5.2%(yoy), 18.6%(yoy)씩 증가하여 최고 실적을 예상. 투자포인트는

- ① 현 주가(3/11, 80,300원)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2025년 P/E 6.5배, P/B 0.65배), 하방경직성을 확보한 가운데 1Q25 및 2025년 영업이익 상향으로 2025년 실적대비 저평가 심화
- ② 가전(H&A, 2025년 HS 변경 예정)의 경쟁력이 다시 확인된 1Q로 판단. 미국의 멕시코에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프리미엄 중심의 매출 확대, 그리고 글로벌적 생산 효율성을 추구, 가전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1.4%(1Q25)로 추정, 매출(9.6조원)은 11.2%(yoy) 증가, 분기 최고를 예상. 데이터센터용 칠러 매출 증가 등 HVAC(공조기) 사업의 매출 성장이 높은 동시에 수익성 기여도가 확대. 2025년 공조 사업을 본부(HS)로 확대, 차세대 성장으로 육성
- ③ 인도법인의 상장 추진, 인도에서 준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 및 점유율 1위로서 수혜 예상, 상장 이후에 유입된 자금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봇, 웹OS 등) 관련한 M&A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LG전자의 저성장(TV 등) 우려 및 관세의 불확실성을 상쇄, 밸류에이션의 할증 요인으로 평가 전망
- ④ 관계사인 LG이노텍(연결)과 LG디스플레이(지분법 반영)도 2025년 실적 개선을 전망. LG전자의 주당순이익(EPS) 상향으로 연결, 순이익 증가는 배당 확대로 연결, LG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서 배당 증가의 수혜로 판단

### 1Q25 영업이익은 1.41조원으로 5.3%(yoy) 증가 추정, 컨센서스를 상회

연결, 2025년 1Q 매출(22.5조원)과 영업이익(1.41조원)은 전년대비 각각 6.5%, 5.3%씩 증가 추정. 가전(구)H&A, 신)HS)은 불륨업 전략과 구독가전 등 신성장 추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11.2%(yoy), 16%씩 증가 전망. TV(구)HE, 신)MS)는 LCD 패널 가격 하락, OLED TV판매 증가, 웹OS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예상을 상회, 영업이익률 2% 추정

(단위: 십억원 %)

| 구분   | 1Q24   | 4Q24   | 1Q25(F) |        |      | 2Q25  |           |        |       |       |
|------|--------|--------|---------|--------|------|-------|-----------|--------|-------|-------|
|      |        |        | 직전추정    | 당사추정   | YoY  | QoQ   | Consensus | 당사추정   | YoY   | QoQ   |
| 매출액  | 21,096 | 22,761 | 22,251  | 22,476 | 6.5  | -1.3  | 21,987    | 22,456 | 3.5   | -0.1  |
| 영업이익 | 1,335  | 135    | 1,139   | 1,406  | 5.3  | 938.3 | 1,203     | 1,070  | -10.5 | -23.8 |
| 순이익  | 475    | -715   | 521     | 713    | 50.2 | 흑전    | 573       | 490    | -12.3 | -31.3 |

자료: LG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인핸스 (Enhans)

박세라

sera.park@daishin.com

## 인핸스: 커머스계의 팔란티어

- 이커머스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 AI 에이전트 솔루션은 기존의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
- 올해 시리즈 B 투자 유치, AI 에이전트 솔루션인 CommerceOS의 성장 기대

### 이커머스 실시간 상품 정보 처리와 분석 및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인핸스(Enhans)는 2021년 2월에 설립된 AI 이커머스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이다. 당사는 AI Agent Platform(AIAP)를 개발해 24시간 7일 내내 실시간으로 상품 정보 처리와 분석 및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CommerceOS를 출시했다.

인핸스는 2023년 11월 스케일업 팀스 과제인 “인간-인공지능 협업을 위한 액션 트랜스포머 및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개발”에 선정될 정도로 선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CommerceOS 사업부문

2024년 기준 인핸스의 매출은 약 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9.5배가 증가했는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덕분에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사의 2024년 매출은 1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올해 B2B 비즈니스인 CommerceOS 사업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해외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약 10억 달러 이상 추정

북미 기반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AI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동사의 경우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핸스는 올해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으며, 포스트 밸류는 약 1,000억 원 내로 추정된다. 경쟁사들에 비해 아직 매출 규모는 작지만, 추후 AI 서비스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당사는 경쟁사들에 비해 매력적인 기업가치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